

EC HO

깊은 우리 젊은 날

깊고, 기쁜 우리의 젊은 날.
내 사람 그리고 내 젊음을 향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소리쳐보자



15

2018.MAY

EC HO

val. 15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발행인

김성해 Kim seong hae

편집위원장

권재승 Kwon jae seung 우혜정 Woo hye jung

편집위원

Editor - 김나영 Kim na young

Editor - 김고은 Kim go eun

Editor - 김가희 Kim ga hee

Editor - 공유나 Kong yu na

Editor - 손민경 Son min kyeong

Editor - 김윤지 Kim yoon ji

Design - 손현아 Son hyun a

Design - 손민정 Son min jeong

Design - 이다혜 Lee da hye

Design - 전명주 Jeon myeong joo

Photo Editor - 이경연 Lee kyeong yeon

VOL15 CONTENTS :

E

06 이달의 주의자_VOL.15

키덜트주의자 이야기

C

11 나는 나에게 상처를줘

우울과 위로 그 사이에서

12 우리의 건강한 연애를 위하여

우리 이제 건강해져볼까요?

14 5월은 결혼의달?

비혼주의자가 되기로 했다.

15 오이 싫어!

H

18 ECHOPATCH

축제 그리고 주막을 낱알히 파헤쳐 보다.

19 우리들은 잘한다

잘하면서 자라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20 WHAT IF

만약 그 때 선택이 아니었더라면?

O

24 <어린이날? 어른이날!>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날 시리즈

장소 추천 / 애니메이션 추천 / 선물 추천

30 내 젊음에게 바치는 아이템

내 젊음을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아

31 그대여, 우리 이제 피크닉 갈까요?

피크닉 아이템 추천기

33 안녕하세요

가벼운 안부와 함께 하기 좋은 선물 추천

34 당신의 시그널

행동으로 알아보는 시그널

35 갈증해소 탄산 음료 추천

36 GET READY WITH ECHO

젊음을 위한 헤어스타일링 / 90'S FASHION

42 현상소



“우리 지난 날을 추억하고
우리 오늘 날을 간직하고
기억해요 깊은 우리 젊은 날”
-밴드 위아더나잇-

흔히들 말하는 가정의 달 5월
그간 정신없이 시간에 쫓겨
전하지 못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달이 아닌가?
서로가 서로에게 깊어지는 이 달,
내 사람 그리고 내 젊음을 향해
'너와 젊음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리쳐보자!



E

engaging

이달의 주의자

우리가 주목해 볼만한 이달의 ISM人

-
VOL.15



키덜트 주의자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함과
포근함을 느끼고 싶을때.
저에게 있어 디즈니·픽사 영화가
바로 그 작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죠."

15호 주의자_ '키덜트주의' 성혜원

사람들을 만나고 각자의 취향, 취미들을 공유하다 보면
좋아하는 영화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디즈니·픽사 영화요!"

그러면 가끔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영화는 어린애들이 보는 거 아닌가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러한 질문에 허허하며 씁쓸하게 웃어넘기곤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애니메이션 영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나의 취향이자 좋은 문화로 보는 추세로 점점 바뀌다 보니 이제는 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쩌면 당연한 건데 말이죠.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애니메이션 영화를 좋아하고
또 그와 관련된 소품, 장난감 등을 모으는 어른들이 잘 안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키덜트족이 당당하게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관련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다가
최근에 영화 속 캐릭터 굿즈를 직접 하나 둘 사게 되었어요.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 주변에서 선물을 받기도 하고

괜찮은 소품샵을 추천받곤 해요.
다른 키덜트 분들에 비해 아직은 소박하지만,
제 옆에 영화 속 캐릭터 친구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든든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언젠가 모든 친구들이 다 모이는 날이 올 수 있겠죠?

-많은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왜 디즈니 · 픽사 영화인가?

사실 어린 시절 가장 인상 깊게 머릿속에 박혔던 애니메이션 영화는 지브리 회사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에요. 아주 어릴 때 보았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충격과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 중의 하나로 기억하고 있죠. 반면 처음에 디즈니 · 픽사 영화는 그만큼의 여운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공주시리즈가 몇 편 있었는데 이미 동화책으로 본 내용들이라 사실 집중해서 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일요일 아침마다 방영하는 '디즈니 만화동산'을 언니와 같이 보게 되었어요. 그중에서도 티몬과 푼바, 인어공주, 곰돌이 푸라는 작품을 봤던 것 같아요. 이 작품들을 통해 지브리와는 또 다른 디즈니만의 매력을 알게 되었죠.

캐릭터 하나하나, 아름다운 배경 그리고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디즈니를 좋아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후에 자회사가 된 픽사도 좋아하게 되었죠. 잠이 안 그래도 많은 제가 유일하게 일찍 눈을 번쩍 떴던 날이 일요일이었지 않을까 싶네요. :)

성인이 된 후로는 어렸을 적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특유의 긍정적이고 감성적인 대사에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었어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보아도 참 공감이가는 뭉클한 대사들이 많더라고요. 대사들이 꾸밈없고 진솔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왜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디즈니 · 픽사 영화는 더 나아가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동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키덜트가 말하는 키덜트

잊고 지낸 나의 동심, 그 향기가 그리울 때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선물인 것 같아요.
동화는 꼭 어렸을 때에만 봐야 하고 장난감은 꼭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려한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잔잔한 다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좋아하는 포인트가 다를 뿐인 걸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건전한 모습을 추구하는 키덜트라면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멋진 취미를 가진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디즈니 · 픽사를 두 배로 즐기기!

①추천 작품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 많다 보니 주변에서 제일 좋아하는 작품, 캐릭터를 물어볼 때마다 정말 고르기 힘든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디즈니 · 픽사 영화의 매력을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테마 몇 가지를 정해서 소개해드릴게요.

✓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작품 - 주먹왕 랄프

제목만 듣고 판단하긴 금물! 일단 한 번 보면 그 매력에 퐁당 빠질 거예요.

✓ OST가 좋은 작품 - 포카혼타스 & 라푼젤

바람의 빛깔로 많이 알려진 Colors of the wind / 가사가 참 좋은 If I never knew you
주인공의 심정을 잘 나타내는 when will my life begin / 눈과 귀가 즐거운 I see the light

✓ 온 가족이 함께 보기 좋은 작품 - 코코

가장 최근에 개봉한 영화로, 느껴지는 감정이 세대마다 같고도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 시리즈가 완벽한 작품 - 토이스토리 1,2,3

지금까지 그 어떤 시리즈 중에서도 완벽한 스토리를 자랑하죠! 2019년에 나오는 4편이 걱정될 정도로..



②소장욕구를 부르는 굿즈

요즘 퀄리티 좋은 굿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 구매가 가능한 곳을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 다양한 믿을 수 있는 정품을 만날 수 있는 곳 : **해외 디즈니랜드**

✓ 가장 저렴하고 실용적인 굿즈를 만날 수 있는 곳 : **다이소**

✓ 국내에서 다양한 굿즈를 만날 수 있는 곳 : **소품샵**

C

communicating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줘

나에겐 늘 그림자처럼 우울감이 따라다닌다.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다. 그저 오래되었다는 느낌만 남아있을 뿐. 나에겐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있다. 우리는 매일 함께해도, 오랜만에 만나도 대화 패턴이 똑같다. 온갖 재미난 말들로 배가 아플 정도로 웃다가 끝엔 각자의 곁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우울감에 관해 얘기한다. 요즘 나의 우울감은 어떠한 빈도수로 찾아오는 지, 그럴 때마다 어떻게 견뎌내는지를 얘기하다보면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줘.”

아, 이제야 생각이 났다. 내 우울감은 12살 즈음 교실 한구석에서 발견되었고, 중학교 때에는 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곁을 함께했다. 처음엔 어쩔 줄 몰랐던 낯선 감정은 이젠 나의 일부분이 되어 매일, 내일을 함께한다. 돌이켜보면 나의 첫 우울감은 타인에게 받은 상처로 생겨났다. 그러나 지금은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중에 8할이 나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왜 매번 똑같은 일에 같은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건지.”

어쩌다 보니 나는 타인의 고민을 들어주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각자의 사정과 지독한 감정에 덩달아 진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다. 고민을 들어주는 만큼 위로도 많이 했다. 그러고는 위로가 제일 힘들다고 매번 결론 내린다. 아직도 어떤 위로가 제일 좋은 위로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내 앞에서 누가 울면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왜 울어, 하며 당황한 채 웃거나 울고 싶은 만큼 울어, 하며 그저 가만히 등을 쓸어준다. 나는 청자의 역할을 몹시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

“사람은 다 달라, 그래서 난 너의 선택을 존중해.”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방식은 뻔하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구나 하며 이해하거나 인정한다. 그리고 당신이 당시 느꼈던 감정과 행동에 대해 타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나였어도 그래. 이건 내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자 타인을 인정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다. 내가 이만큼 너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말이 뭐가 있는지 머릴 최대한 굴려도 생각이 안 날 땐 그냥 침묵한다. 힘내, 와 같은 무책임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아서.

“왜 우린 매번 상처받을까. 우리 상처받지 말자.”

상처를 줬다는 생각에 괴로웠던 날보다 상처를 받은 날에 괴로웠던 날이 많다. 그렇게 매번 힘들어도, 나는 매번 나에게 상처를 받는다.

나는 나 자신을 무기력하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어 끊임없이 생채기가 나도록 스스로 종용한다.

지난날 친구들과 새벽에 나란히 누워 각자의 늪에 관해 이야기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연민하는 끝없는 굴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서로에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 상처받지 말자고, 더는 스스로 상처 주지 말자고.

우리의 건강한 연애를 위하여

연애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연애를 하고 있나요.

배려가 넘치는 연애, 사랑이 넘치는 연애, 편안함이 느껴지는 안락한 연애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이 건강한 연애를 하길 바라니까요. 혹시 아니라면, 우리 좀 더 얘기해볼까요?

1. 휴대폰은 잠시만 내려주세요.

연락의 빈도수가 애정을 나타낸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어떻게 온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살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나를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처음과 달리 연락이 소원해졌다면

서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처음부터 다르게 생각해봐요.

연인의 모든 시간은 '당연히' 나를 위해 쓰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요.

2. 조금만 덜 솔직해져요, 우리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분명,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죠? 화나는 일도 많고요. 세상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잘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은 언제나 당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할 준비가 되어있어요. 하지만 연인은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어디서도 표현 못할 감정을 연인에게 화풀이하듯 하지 마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자 한 거지,

당신의 무자비한 감정 풀이를 감당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서로 솔직하되, 조금은 덜 솔직해져요, 우리.

3. 집착이 왜 사랑이예요?

사랑에는 존중이 필요해요. 서로를 그대로 존중할 수 있어야 건강하고 성숙한 연애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연인으로 함께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과 개인이잖아요. 언제부터 '사랑해'라는 말이 '난 너의 소유물이야'가 되었나요?

우리에겐 각자의 관계망과 생활 방식이 존재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똑같은 사람을 찾기는 힘들 거예요.

나의 관계들이 소중하듯 연인의 관계도 소중한 것임을 인정하자고요. 당신에게 모든 걸 맞추기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저 욕심이고, 집착이에요. 집착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도록 해요.

4. 편안함과 무례함의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한 시간만큼 우리 관계는 단단해지고 덩달아 편안함도 느껴져요.

눈빛만 봐도 어떤 감정인지, 어떤 걸 원하는 지, 척하면 척, 모든 것이 잘 맞는 기분. 그런데요, 우리 무례해지지는 마요.

편안함과 무례함을 착각하는 나쁜 일은 만들지 마요. 허물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관계에서 가끔은 헛갈리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땐 한 템포 쉬어가요, 우리. 조심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앞에서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서로를 존중하자고,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편안함과 무례함을 헛갈리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사실, 대인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라 늘 말하잖아요. 연애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를 생각하는 만큼 상대도 생각해야 하는 건 늘 익숙지 않아요.

그래도 어찌겠어요. 우리의 건강한 연애를 위해 매번 노력해야 하는 걸 이젠 알잖아요. 사실 저는 연애박사가 아니에요.

어쩌면 당신보다 연애한 횟수도 적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난 당신의 연애가 건강하길 바라거든요, 진심으로.

5월은 결혼의 달?

5월은 가족과 함께하는 연휴가 많다. 그 가족의 테두리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결혼이다. 5월의 신부라는 말이 있듯이 5월은 결혼의 달이다. 하지만 꼭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일명 결혼 공화국이다.

결혼을 우리 인생에서 매우 당연히 여기며, 필수적인 일이라고 본다.

사람들은 서른을 앞둔 사람들에게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라는 질문으로 안부의 말을 시작한다. 과연 결혼은 우리의 인생에서 필수적인 요소인가? 나의 대답은 '아니다'이다.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은 결혼이라는 그물에 갇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만 자신을 희생하고 결혼을 한다. 그래서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일까? 얻는 것은 주변 시선에서의 해방 정도일 것이다. 하나에서 해방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잃고 결혼을 선택한다. 그에 반한 여성들에게 주변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결혼을 강요하며, 결혼을 못했을 경우 '루저'로 분류한다. 과연 정말 그들은 '루저'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루저'인 거 같다. 이러한 사상은 한국 드라마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은 드라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다. 항상 사랑에 힘들어하는 여성, 결혼 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이제 결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야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결혼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실현되어야 한다



세상에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음식이 몇 가지 있다. 브로콜리, 당근, 가지, 굴 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단연 최고의 호불호 음식은 바로 '오이'라고 본다. 오이, 그 무서운 것에 대해 할 말이 많다.

너 냄새 나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중 독보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오이 특유의 향! 이상한 물 비린내가 나는 듯한 오이의 향 때문에 눈 감고 먹어보려 해도 코를 강하게 찌르는 오이 향 때문에 번번이 편식을 유발하곤 한다. 이 오이의 향은 어쩌나 유별난지 여러 재료가 섞여있는 곳에서 그 녀석의 존재감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김밥. 김밥 속 재료에 얼마나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오이 조각 하나 킂다면? 오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향이 그렇게 나냐며 공감 못하지만 오싫모(오이를 싫어하는 모임) 회원들에게는 그 향 강하다는 흥어만큼이나 비릿하게 코를 쑤셔온다.



우와. 굉장해.

“향 때문에 오이를 안 먹는다고? 채소 먹어야 건강해지지!” 오싫모 회원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고정 잔소리다. 하지만 우리는 저 말도 납득할 수가 없다. 채소는 몸에 좋은 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실제로 그렇다. 그리고 오이는 채소다. 그럼 오이를 먹으면 몸에 좋다? 오이는 이 삼단논법을 거부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다.

오이의 90%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로 이루어져 있으면 영양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이는 영양가가 제로는 아니다. 놀랍게도! 오이의 주된 영양소는 바로 피부에 좋다는 비타민 C. 그래서 다들 팩을 할 때 오이팩이 좋으면서 오이를 썰어서 올리고 오이 많이 먹으면 피부 좋아진다고 유혹을 한다. 그. 런. 데. 오이 하나가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C는 무려 딸기 하나의 4분의 1이다. 우와. 굉장해. 그 길쭉하고 비릿하고 아삭거리는 오이 하나를 다 먹으면 조그마한 딸기 '4분의 1'만큼이나 비타민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라니...

오이의 만행 (feat. 아스코르비나아제)

오이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도 포함되어 있다. 이름이 제법 길고 있어 보이는 게 엄청난 효능을 줄 것만 같아 보이는데 이 효소의 능력은 바로!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 딸기의 4분의 1밖에 없는 비타민 C 마저 파괴 해버린다니 대체 이거 뭐 하는 놈일까?

마지막으로 오이의 실체를 말해보려 한다. 오이는 아까 언급했듯이 90% 이상이 수분이다. 그렇다면 턱관절을 움직여가며 온전한 물보다 못한 오이를 먹어 수분을 섭취하기보다 그냥 나는 물 따라 마시는 걸 권하고 싶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살면서 오이를 강요 받아야만 했던 이 시대의 오싫모 회원들은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오이 먹는 건 무의미한 일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먹이는 오이 소박이, 소풍이면 먹는 김밥 속 오이, 짜장면 위 오이채. 일반인들은 음식을 보면 맛있겠다는 생각부터 하지만 우리들은 '오이 들었나?' 를 먼저 생각 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오 이 (52세)

너도싫니

H

hosting

ECHOPATCH

모든 궁금증에는 에코가 있습니다.
실오라기 없이 파헤칠 **에코패치**.

15. 축제 그리고 주막을 파헤쳐 보다

대학교하면 축제가 빠질 수 없죠! 5월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학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ECHO에서 이번에 만난 주인공은 바로
주막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17년도 홍보차장을 만나보았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축제, 그중에서 주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함께 만나보려 갈까요?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미컴 17 귀요미 2학년 이현정입니다!

2. 작년 축제 주막에 대해 짧게 소개해주세요.

주막 이름은 '미컴과 철컹행'이었고 주막 콘셉트는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역할을 나눠서 경찰복과 죄수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3. 주막 콘셉트를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나요?

주막 콘셉트 회의를 하다가 다른 학교 축제 사진들을 보고,
경찰 테이프를 천막 기둥에 연결한 것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

4. 축제 주막 때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호객: 저희 주막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이동해가면서 홍보하는 일을 해요.
주방: 맛있는 음식들을 요리하는 일을 해요.
홀서빙: 손님들에게 완성된 음식과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져다 드려요.

5. 축제 주막을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점이나 필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주막을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점은

독특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다른 과들과는 차별화된 주막을 만들기 위해서

수시로 회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막 콘셉트에 맞게 분위기나

메뉴판 등 다양한 소품들을 준비했어요 :)

6. 축제 주막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주막 홍보를 하러 다니면서

반응을 안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굉장히 민망했던 게 생각나요:)

또, 일을 하면서 배가 고팠는데

주방 일을 하는 동기들이 음식을 해줘서

뒤에 앉아서 몰래 먹던 게 기억나요~

7. 마지막으로 축제 주막을 준비하고 있을

18들에게 한마디해주세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축제 주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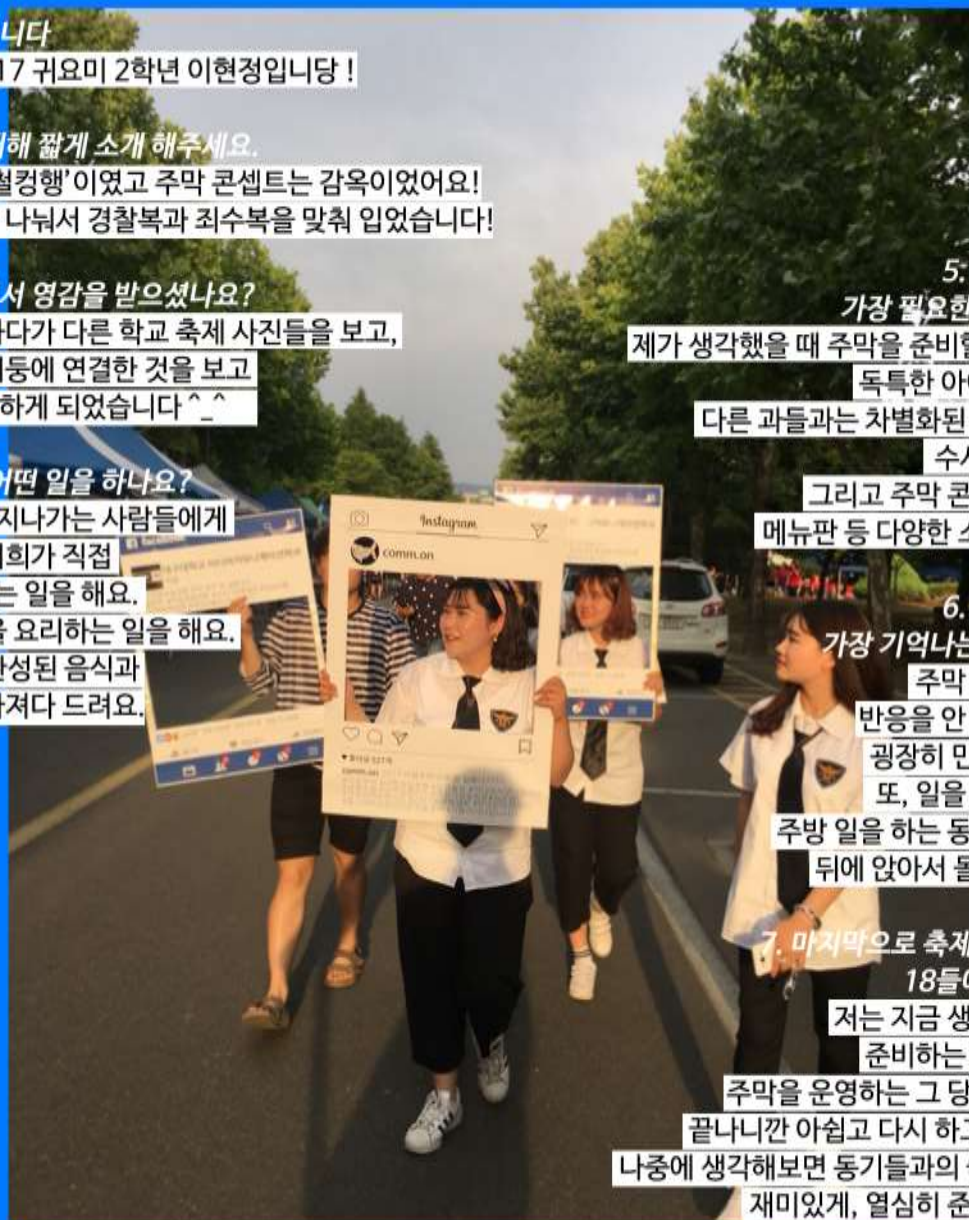
준비하는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주막을 운영하는 그 당일은 너무 재미있었고

끝나니깐 아쉬고 다시 하고 싶어요! 힘들더라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동기들과의 좋은 추억이 될 거니깐

재미있게,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



우리들은 잘한다

“우리들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 어린이날 노래 中 -

5월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5월5일 ‘어린이날’이다.

하지만 우리는 벌써 쑥쑥 자란 성인이 되었음에 ‘어린이날’ 보다는 ‘어른의날’이 더 어울린다.

그래서 나는 ‘어린이날’의 노래 가사 중 ‘우리들은 자란다’를 ‘우리들은 잘한다’로 바꾸어

어느덧 성인이 된 학우들에게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영뚱한 대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보다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들의 ‘잘한다’에 공감할 수 있길.

14. 김도형 학우

- 내가 좋아하는 책 읽기
- 노래 부르기
-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기

14. 김은수 학우

- 집 청소하고 침대에 뒹굴거리기
- 누군가의 이야기 잘 들어주기

16. 성다희 학우

- 밤샘을 잘한다
- 서빙을 잘한다
- 누군가에게 감정표현을 잘한다
- 도전을 잘한다

17. 김아현 학우

- 누군가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
- 친구가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준다

17. 김효영 학우

-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어 준다
-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 열정이 가득하고 좋아하는 것에 욕심이 많다

18. 장준녕 학우

- 그림을 잘 그린다
- 춤을 잘 춘다
- 여러 가지 운동을 잘한다

18. 유세이 학우

-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잘한다
-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잘한다
- 어느 상황에서든 웃는 것을 잘한다

what if?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에 놓이게 되고 순간마다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이 타인에 의한 것이든, 내 의지에 의한 것이든
한 번 선택한 것으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페이지를 써 내려간다.
대부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순응하며 살지만 가끔 돌이켜 봤을 때
어떤 미련들이 남아 만약 그때 내가 이랬다면? 하고 가정해보곤 한다.
그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자.

성다희 (16학번)

내가 만약 영상을 하지 않고 연기를 계속했다면?
작은 공연이라도 무대 위에 있겠지 싶다. 그래서 이 선택에 미련이 남았던
적이 많았는데 특히 친구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이 영상으로 찍어주는 일을
할 때는 1분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던 것 같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참는 능력'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선택한 길이 내가 만든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가끔 내가 한 선택이 후회될 때도 있지만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게 '나'를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옥지원 (17학번)

내가 만약 학교를 다시 오지 않았더라면?
그때의 선택이 있기에 지금의 나는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
다양하고 값진, 행복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때 내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마저
나의 선택을 후회하며 수많은 미련과 함께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신혜 (15학번)

내가 만약 면허 따고 차를 샀다면?
매일 학교 마치고 이리저리 놀러다닐 것 같다.
네 바퀴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만약 학교를 통학하지 않았다면?
부지런하게 생활하지 못했을 것 같다.
아마 지금보다 훨씬 게을렀겠지...
(하지만 건강을 얻었을 것 같다.)

김은수 (14학번)

내가 만약 복학을 하지 않았더라면?
전역을 하고 이것저것 현장에서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1년 휴학 후
서울에서 살고 있을 거다. 하지만 나는 배우고 싶은 공부를 제대로
배워 스스로를 성장시켜 사회생활의 출발선을 높여 두고 싶은 마음에
복학을 했다.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서울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겠지만 언젠간 직장생활의 한계점에 부딪혔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서울생활이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스스로의 선택에 후회할
행동은 하지 않기로.

어린이날? 어른이날!

어린이날이 되면 다들 눈치싸움을 시작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놀이공원, 대공원, 동물원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곳은 자칫하면 눈치싸움에 실패해 사람 구경만 하다가 오게 된다. 그래서! 지역 거주민들이 직접 가보고 추천해주는, 눈치싸움 승률 100%에 사람에 불비지 않고 힐링할 수 있는 장소들을 알아보자.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21길 14-1 <피치그레이>

일반 카페와는 차별점을 두고 있는 카페다. 일명 수채화 카페로 카페에 들어서 음료를 시키면 도화지 2장과 수채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물품들을 함께 내어준다. 음료 한 잔과 함께 즐기는 그림 그리기는 마음만은 어린이인 사람들을 위한 딱 맞는 곳이 아닐까?





2. 경상남도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 소리길>

돈금없이 웬 절인가? 싶겠지만 절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해인사로 올라가는 산책길이다! 제주도로 따지자면 올레길 같은 곳인데 현지인이 말하길, 그 길을 걸을 때 옆으로 들리는 계곡의 폭포 소리가 그렇게 웅장하고 좋다고 한다. 이름에 소리길이 붙은 이유도 물소리, 새소리가 아름다워서 라고 한다.

피톤치드가 어마무시하게 나온다는데 한 번 가보는 걸 추천한다!



3.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296-1번지 <바룻>

아무리 눈치싸움에서 이겨보자해도 핫플레이스 한 번 들리지 않으면 휴일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나마 여러 핫플레이스들 중 사람이 덜 붐빌 것 같은 거제도의 핫플레이스를 추천해본다. 와현해수욕장을 보며 한 그릇 푹딱하는 해물라면과 딱새우찜이 바로 다른 지역 사람들도 소환시키는 비결이다.



어린이를 위한 날이지만 아직 우리는 어른이 아니고 여전히 자라는 어린이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니,
이정도면 어른이라고 칭해도 되지 않을까? 잠시 지쳐있던 일상에서 벗어나 어린이의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자!

애니메이션추천~ OST를 따라서~

우리 곁을 스쳐 간 수많은 애니메이션. 각자가 애니메이션을 기억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는 'OST'가 아닐까. 애니메이션 OST라 그저 유치하다 생각한다면 오산. 지금까지도 명곡이라 일컫는 애니메이션 속 OST를 에코와 함께 만나보자.



1. 이누야샤 - 시대를 초월한 마음

아직도 여러 버전의 편곡과 악보들이 존재하는 명곡. 원래는 가사가 없는 곡이지만, 후에 가사가 붙여져 새로운 버전이 등장했다. 그래도 팬들의 마음엔 원곡이 더 사무치는 법.



2. 달빛천사 271 (ED) - My Self

OST가 유명한 애니메이션 중 손꼽히는 작품이 바로 달빛천사(원제: 만월을 찾아서)가 아닐까. 긴말이 필요 없는 이용신의 청아한 목소리와 다소 슬픈 가사와 멜로디가 어우러진 명곡.



3. 나루토 2기 (OP) - 활주

한국판 방영 오프닝 곡으로서 인기 밴드 버즈가 불러 큰 화제였다.
굉장히 신나는 밴드 사운드와 민경훈의 보컬이 잘 어우러진 명곡.
당시 노래방에서도 많이 불린 곡이다.



4. 원피스 10기 (OP) - Share the World

동방신기가 부른 곡으로서 당시 일본에 진출하여 왕성한 활동을 했던
동방신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이다.
원피스 특유의 청량한 색감과 잘 맞는 곡의 분위기를 느껴보자.

5. 도쿄 구울 (OP) - Unravel

OST가 유명한 애니메이션 하면 도쿄 구울을 빼놓을 수가 없다.
강렬한 밴드 사운드와 독특한 보컬의 음색이 이 애니메이션 색과
잘 맞아떨어지며, 도쿄 구울 내 액션신과 합이 잘 맞는 명곡.
사실 이 곡이 가장 대표적인 곡이라 선포되었지만,
Glassy Sky라는 곡도 좋으니 꼭 들어보길.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 이맘때쯤 되면 다들 한 번씩은 어린이날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은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시죠?
동심으로 돌아가 어린이날 선물을 뭐 받을지 고민했던 날을 떠올려보며 행복한 상상을 다시 한번 함께 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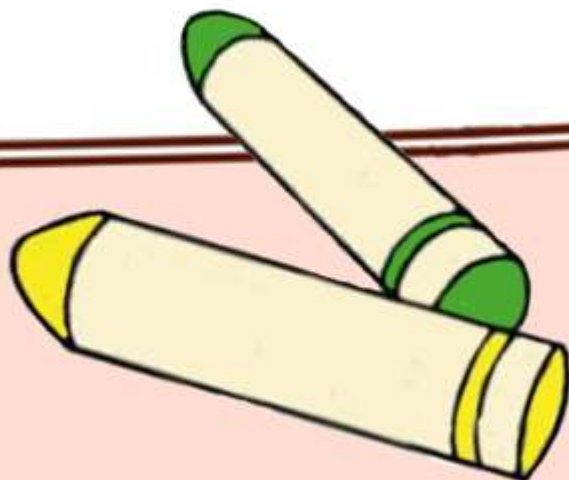
1. 닌텐도

지금처럼 스마트폰 게임이 없던 시절, 닌텐도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재밌게 놀던 기억이 다들 있지 않나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게임 칩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지금은 추억의 게임이 돼버린 동물의숲, 슈퍼마리오, 닌텐독스 등.. 저도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옛날에 가지고 놀던 닌텐도를 켜봐야겠어요!



2. 나비밀대

놀이공원이나 기념품 가게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나비 장난감!
나비 밀대를 바닥에 굴리면서 뛰어다니면 나비의 더듬이에 있는 방울소리가 난답니다.
조금 시끄러울지도 모르지만 7살로 돌아간 기분일 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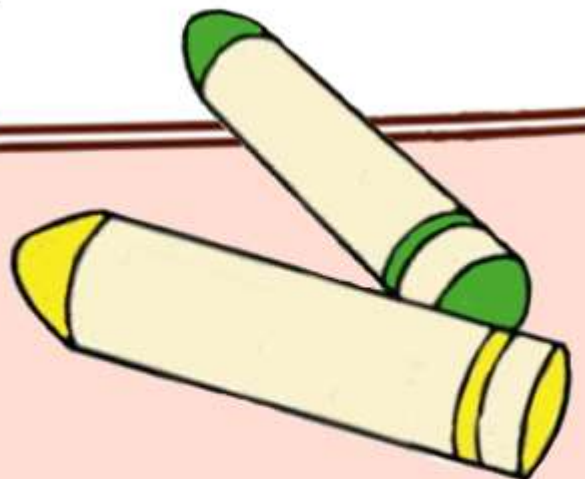
3. 레고

레고 하나만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다 만들어버리는 집중력 100% 발휘해버리기!
만들 땐 어려울지 몰라도 완성된 웅장한 레고를 보면 세상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때 그 시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장난감을 이야기하면 레고가
빠지지 않을 거예요.



4. 립스틱 사탕

립스틱 모양의 케이스를 돌리면 사탕이 나오는 어린이들 안성맞춤 장난감이자
간식! 어릴 적 엄마 화장대 위의 립스틱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선물이지 않을까요?



7월 나의 젊음과 함께 젊음을 함께하는 아이템

여러분의 빛나는 젊음을 어떤 물건들과 함께 보내고 있나요?
내 젊음을 모두 바쳤다고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을까요?
모두가 공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저만의 젊음을 바친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젊음에 음악이 빠지는 게 말이 될까요? 장시간의 통학에서 노래가 없다면 지루함에 미쳐버릴지 모릅니다. 좋아하는 노래와의 장시간 버스 여행과 노래 없는 지루한 버스 여행은 느낌부터 다릅니다!



처음에 너무 귀여운 디자인에 반했지만, 전국호환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알바를 가거나, 집을 갈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젊음을 표현하기에 가장 알맞은 아이템입니다.



가볍게 들고 다니기 편하며, 교통카드의 단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갑을 들고 다니기 귀찮을 때 다 필요한 카드만 챙겨서 다닐 수 있습니다. 항상 제 가방에 있는 필수템입니다. 젊음을 함께 보내고, 보낼 것입니다.



아이템이라고 하기에 조금 무거운 감이 있지만, 젊음을 불태웠다면 다시 충전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공간이며 폭 쉬기 좋은 침대는 도저히 뺄 수 없는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그대여, 우리 이제 피크닉 갈까요

오월은 그저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계절이다.
그런 계절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피크닉'을 즐긴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이다.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가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피크닉'을 나가고 싶지만 어떤 것을
챙겨야 할지 막막한 당신! 이 글을 본다면 당신은 잊지 못할
'피크닉'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1. 샌드위치

사실상 예쁜 피크닉을 가기 위해 어떠한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먹는 음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 중 가장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피크닉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샌드위치이다.
하얀 빵에 송송 썰어 넣은 양배추, 한입에 쏙 넣어 먹는다면
더욱더 피크닉의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 예쁜 돗자리

피크닉은 주로 돗자리에 앉아서 많이 즐긴다.
우리가 평소 쓰는 뽀뽀한 은색 돗자리 보다는 예쁘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화려한 돗자리가 당신의 피크닉 분위기를 한층 더 업!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앉아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사진을 찍는다면 포토존이 따로 없을 것이다.

그대여, 우리 이제 피크닉 갈까요?

3. 바구니

일반 종이가방에 음식과 돛자리를 넣어 오는 것보다는
예쁜 갈색 바구니에 담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까슬까슬한 갈색 바구니에 담은 음식들과 예쁜 돛자리와 함께
사진을 찍는다면 그것만큼 인생 샷이 없을 것이다.



4. 캔 맥주

이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이템 역시 중요하지만 피크닉에 가서는
시원한 캔 맥주가 먹고 싶을 것이다. 예쁜 장소에 가서 예쁜 것을 구경하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캔 맥주를 따자마자 올라오는 거품을 먹으며
자신이 챙겨온 도시락 속 음식을 먹는 것.
그것만큼 당신의 행복을 업! 시켜줄 것은 없을 것이다.



5. 블루투스 스피커

피크닉 하면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노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노래가 함께 한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피크닉이 아닐까?
신나는 음악을 들어도 좋지만 분위기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노래가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다: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
안부를 전하거나 물을 때에 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소홀했다면 이번 달 만큼은 내 주변을 돌아보며 지나가 보는 건 어떨까?

마음을 전하는 것이 서툰 우리, 편지를 쓰는 게 낯설고 어색하다면 다른 방법도 괜찮다.

그래서 에코에서 준비한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방법!

편지쓰기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뭐든 기본이 제일 좋은 것!

어버이 날, 부모님께 감사함을 담은 편지 한 장 전해드려 보자.

손 편지가 어색하다면 카톡, 문자로라도 좋다.

편지를 주고받다 보면 손 편지의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꽃 선물하기

꽃 선물은 연인끼리만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이제 그만!

남녀노소 꽃 선물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큰 꽃다발이 아니어도 괜찮다.

예쁘게 핀 꽃 한 송이만으로도 마음을 전하기엔 충분하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꽃 정도는 알아두면 더 좋을 것.



커피 한 잔

주변에 피곤에 찌든 사람이나 요즘 우울한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달달한 초콜릿을 건네줘 보자.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이 전해질 것이다.



향수&디퓨저

5월의 대표행사는 어버이날, 어린이날도 있지만 성년의 날도 있다.

성년의 날 대표 선물은 역시 향수. 주변에 성년의 날을 맞아

만 19세가 되는 지인이 있다면 향수를 선물해보자.

취향을 잘 모른다면 은은한 디퓨저로 대체해도 좋다.

참고로 성년의 날은 5월 셋째 주 월요일!



당신의 시그널은?

우리의 행동에서 많은 시그널을 표출할 수 있다.
표출을 했다면 상대방은 그 시그널에 응답 해야 하지 않을까?
재미로 보는 '우리의 시그널' ECHO에서 준비했다!

1) 호감이 가는 상대 앞에서 당신의 시그널을
미러링으로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비슷한 행동, 혹은 자세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호감도가 상승한다고 한다.
공통사가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느낌을
주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다.

2) 무의식적으로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손이
혹은 상대방의 손이 귀에 있다면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을 추천한다.
귀를 만진다는 것은 그 이야기에 흥미를
있고 듣기 싫다는 시그널이니까 주의 하자.



3) 서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우리의
행동은 어떨까? 서로가 서로에게 방어를
하기 위해 깍지를 끼거나 팔을 꼬다.
서로 가까워 진다면 그 행동들은 풀리지
않을까?

4) 누군가 나에게 가까이 몸을 기울이고
있다면? 혹은 우리의 무릎이 무의식에
호감이 있는 사람에 향한다면?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관심이 있다는 시그널이다.

시작되는 더위, 갈증해소 **탄산음료** 추천

점점 햇빛이 따가워지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5월,
더운 날씨에 천 원짜리 한 장 들고 편의점에 뛰어가 사먹는
탄산음료야말로 더운 날씨 속에서만 즐길 수 있는 행복이 아닐까?
그래서 예코가 준비해본 속이 땡 뚫리는 탄산음료 추천!

1. 코카콜라



- 탄산음료하면 탄산음료계의 본좌 콜라가 빠질 수 없다. 너무 대중적이고 매니아 층이 많은 만큼 다양한 패키지와 용량이 있다. 거의 모든 음식에 다 잘 어울리기는 하지만 기름진 치킨, 피자과 함께 먹으면 입 속과 몸 속의 기름기를 싹 잠재워줄 것이다.

2. 웰치스



- 더운 날씨에 길가다가 문득 목이 마를 때 편의점에 가면 찾게 되는 음료다.
톡쏘는 탄산맛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엔 달달한 포도향이 입안 가득 남는다.
뽕뽕한 외관만큼 친구들과 나눠먹어도 될 정도로 많은 양이 강점!

3. 데미소다 자몽



- 그동안의 사과, 오렌지 원조 데미소다는 잊어라! 달달하면서도 씹새로운 자몽 맛에 탄산의 조화는 진리.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맛이지만 자몽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

4.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 엄청 특별하지도 않으면서 딱 탄산음료의 정석 같은 느낌의 음료다.
'이 중에 네가 좋아하는 맛 하나쯤은 있겠지' 하는 느낌으로 맛도 다양해서 취향에 따라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5. 갈라만시 소다



- 다들 알고 있는 유명한 탄산음료도 좋지만 가끔 새로운 걸 맛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래서 발굴한 숨은 꿀템. 카페에서 파는 비싼 갈라만시 에이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맛이다.
가까운 편의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자매품으로 수박소다와 망고소다가 있다.

Hair challenge! Style change!

에디터는 요즘 탈색도, 염색도, 히피펌도 겁 없이 도전하면서 나의 젊음을 가장 잘 표현해 줄 헤어스타일을 찾아 헤매고 있다.

매 계절이 바뀔 때 마다 찾아오는 헤어스타일 고민도우리가 젊다는 증거가 아닐까.

젊음이란 면죄부로 도전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추천해보려 한다. 아! 물론 젊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1. 히피펌

배우 정유미를 시작으로 연예계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헤어스타일
뿌리부터 구불구불한 펌이 들어가
손질이 되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부스스한 점이 매력이다
(배우 정유미, 탤런트 설리)

2. 탈색

향후 머릿결을 담보로 저질러야하는
헤어스타일이기에 더더욱 젊을 때
해보는 것을 추천
탈색횟수에 따라 적당한 밝기부터
아예 백금발까지
멀리서도 눈에 띄는 연출이 가능하다
(모델 soojoo, 가수 펜타곤 이던)





3. 옴브레 & 파스텔 톤 염색

평범한 색보다는 남들이 잘하지 않는 독특한 색으로 염색해보자 탈색이 필수겠지만 염색은 셀프로도 가능하다.
어떤 색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도전욕구를 자극한다 (유튜버 포니, 모델 아이린, 가수 빅스 홍빈)



4. 유니섹스 헤어스타일

고정관념처럼 여성에게는 긴 머리, 남성에게는 짧은 머리가 떠오른다
여성이 깔끔하고 시크한 투블럭, 남성이 찰랑찰랑한 윤기나는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상상을 해보라
(배우 김재욱, 배우 이주영, 모델 노신신)



P.F

Parent's fashion

90년대 우리
부모님의 패션

5월 어버이날을 기념해 우리의 부모님의 젊은 시절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문득 들었다.
얼마나 자유분방했을까?
혹은 지금 보다 더욱 보수적인 옷차림은 아니었을까?



일명 X세대라 불리우는

그들의 패션은 X라기보다 O에 가까웠다.

당당함이 묻어나오는 표정과

자신을 표현하는 헤어스타일,

현 세대보다 어찌면 더욱 과감할지 모른다.





저번 년도부터 차츰차츰
무난하게 입기 좋은 블레이저는
과거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거기서 X세대는 촌스럽기보다



트렌디했다.
크롭 탑이나 민소매는
그들의 자신감과
멋있음을 부각시켜주었다.

올해 꽤 많은 유행을 타고 있는

와이드 팬츠 역시 사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패션은 돌고 도는 것이며

또다른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우리도 모르던

90년대 당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패션 센스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VOL.15



現像所
HYUNANGU